무엇이 우리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

정진홍*

I.

청소년의 삶의 정황은 어른들이 빚은 사회이고 문화이며 역사이다. 청소년은 그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어른들에 의해 태어난다. 생리적으로도 그러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어른들의 세계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의 현존이 자리하는 생태적 정황이다. 그 한계 내에서 숨쉬고, 행동하고, 사색하며, 꿈을 키운다.

물론 그 어른들의 세계도 그들에게 전승된 그 이전의 어른들의 세계라고 하는 논리적 서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역사성이란 이를 실증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문화의 전승이라고 하는 언표의 개념은 그러한 사실을 함축한다.

그러나, 그 때 어른들의 그 이전의 어른의 세계와의 관계는 지금 어른들과 청소년의 관계와는 다른 수용구조를 갖는다. 그것은 어른과 청소년의 개념차이가 분명하게 시사해준다. 그 구분이 생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인성적이든, 그 시각의 다름과는 상관없이, 어른과 청소년의 개념구분은 성숙과 미성숙, 현실태와 가능태로

서의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세계나 문화가 청소년의 생태적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이해를 어른과 그 이전의 어른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숙한 현실태로서의 수용양태와 미성숙한 가능태로서의 수용양태는 구조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어른이 스스로 청소년의 생태적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당대 이전으로까지 소급할 수는 없다.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어른은 자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이전의 어른들에게 전가할 수 없지만, 청소년은 말하자면, 자기 세계에 대한 책임을 현존하는 어른에게 전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은 스스로 청소년의 생태적 환경에 대하여 어떤 것에도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어른이나 청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간 안의 존재에 대한 어떤 현상을 추상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적 정체성을 그대로 어른이나 청소년의 현실에 적용하여 하나의 고정된 객체를 지칭할 수는 없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느 틈에” 청소년은 어른이 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대적 동시성 속에서의 청소년의 현존이 분명한 현실인 한, 그러한 개념형성은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서술을 위한 적합성마저도 지닌다. 따라서 어른이 청소년의 생태적 환경이라는 진술은 우리의 맥락에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른들의 문화가 스스로 형성하고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현존이나 문화를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비록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현존을 판단하려 할 때조차도 그것은 별로 사회적 현실로 의미있게 전개되지 않는다. 그럴 때조차도 그것을 규정하고 제어하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어른들과 그들의 문화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문화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의 현존성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갖는 전체문화에서의 영토성, 또 그것이 지니는 이른바 반문화(反文化)적 특성, 그래서 지니지는 그 문화의 창조적 지향성을 그 내실로 서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을 운위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그 청년문화라고 운위될 수 있을 문화의 반전체로서의 특성은 그 전체로서의 어른의 문화를 구조적으로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의 논리는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것은 청소년의 자율적 현존성이나 청소년의 창조적 상상력이나 어른이 꿈에서 조차 수용할 수 없을 그들의 미래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거나 차단하는 이른바 청소년의 현존 자체에 대한 부정적 귀결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의 생태적 환경이 어른의 문화라고 하는 진술을 청소년문화에 대한 어른의 책임을 살피려는 맥락에 국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소년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책임을 서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한정하는 기능개념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어른의 문화를 보다 상술해 보기로 한다.

II.

현존하는 어른의 문화는 근원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진술은 어떤 의미에서든 지나친 언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청소년의 자존심을 훼손하기 전에 어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황에 대한 분석적 인식은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귀결은 불가피한 현실 인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은 사회구성을 위한 자원으로 환원될 때만 비로서 그 존재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지닐 수 있는 생산성의 기대 속에서 정형화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구정책의 현실성도 청소년의 통계로 구체화된다. 하나 낳기, 둘 낳기 등의 지표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첩경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청소년에게 소모될 자원의 절약을 통한 삶의 질의 상승기대라고 해도 좋을 측면을 지닌다. 청소년의 감소가 청소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동시에 어른의

현실이 보다 덜한 부담 속에서 연장되기를 바라는 의도의 굴절된 표출이기도 하다. 결국,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낳아 괴롭지 말자는 의식을 그 선언이 함축하고 있는 한, 사람은 제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이 담고 있었던 문화정황에서 지낼 수 있었던 자식들에 대한, 곧 청소년에 대한 사람대접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이 인구억제정책을 “문화화”한다면 그것은 삶의 총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결여한 것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관심을 노정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앞서 지적한 자원으로의 환원성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회가 지탱해가기 위한 생산성과 연결된 청소년 자원의 관리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노년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에서 살펴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노년이나 청소년의 현존의 의미는 인간의 현존이라는 범주에서 다른 것일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에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때문이기 보다는 그들이 지닌 자원성의 효율성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직하다. 어찌면 청소년에 대한 미화된 수사들은 그 정직성을 은폐하기 위한 무의식의 발로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도의 구체성은 교육에서 드러난다.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곧 그 제도나 학습구조나 내용 등에서, 교육이 인간의 성숙, 인간다운 인간이기를 기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본질의 개념적 잔영일 뿐 실체는 아니다. 사회구성의 효율적 배분을 위

하여 청소년의 가능성은 기계적으로 재단된다. 사회구성의 성숙을 위하여 교육의 한계가 과해진다. 가능성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구체화되면서 그 제약은 구체성, 곧 가능성의 현실화로 설명되고 그것이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설득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 속에 깃들 수 있는 청소년의 비인간화 가능성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 어른들의 의식은 자칫 허위의식을 사는 것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의식을 무의식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자녀관도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다. 자녀에의 기대는 먹이고 입히고 잘 가르치고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부모는 자기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드러나는, 혹은 드러나지 않게 의도되는 기대의 내용이 자녀들 곧 청소년들의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다한 동기들로 가득차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자신의 좌절을 투사한다든가, 자기의 성취를 전승한다든가 하는 동기가 강요되면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인 자녀는 부모인 어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리는데도 그것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것으로 확신한다. 스스로 자녀를 물화시키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희생으로 미화하고, 그에 대한 감사마저도 덕목화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가정에서 조차 자녀는 생산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족구성원의 미덕이고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노동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경우의 부모의 의도는 자식의

현존을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감출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회의 젊은 노동력이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생산적 기대와 일치하여 노동시장의 상품으로 판매되는가를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어른이 청소년의 비인간화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사회구조는 그 비인간화를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데 정비례하여 발전되는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어서 객관적인 성찰에 스스로를 열어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현존이 문제로 인식될 때조차도 그 문제를 가늠하는 척도는 얼마나 그들의 물화된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언표, 곧 청소년을 생산성이나 자원이나 그를 위한 비인간화나 물화라고 서술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같은 언표 가능한 현실성에 대한 지극한 문제의식을 서술하고 발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그럴 수 있다는 데 청소년에 대한 어른의 자의식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소년을 어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어른들의 윤리적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나의 의미체계나 가치규범을 실천하는 도덕적 덕목은 그것이 일관성을 가질 때 비로서 현실성을 갖는다. 때와 장소, 상황이나 대상에 의해 가변적인 덕목이란 윤리적 규범성을 스스로 지니지 못한다. 그것은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 덕목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도덕적 덕목으로 요청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적어도 두가지 입장에서 묘사될 수 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윤리적 덕목을 살 수 있을 만큼 성

숙해 있지 않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더 붙어 사는 나 아닌 상대방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든지 하기 때문이다. 어른의 도덕적 삶의 시현과 청소년의 관계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은 후자의 입장일거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의 현존 앞에서 벌어지는 어른 문화의 형태는 서술될 도리가 없다. 퇴폐와 향락, 사치와 부정, 기만과 권모, 환상적 기대, 반지성적 광기는 어른문화의 본질일 수는 있어도 청소년 문화의 본질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전히 그래서 안된다고 발언하면서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청소년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지극한 참회일 수도 있고 청소년에 대한 더할 수 없는 아낌일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시정되지 않는 한 실은 청소년의 현존을 결과적으로 간과하는 것, 곧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발언은 굴절된 자기정당화의 표출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은 어른들의 자기정당화를 위해 동원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비인간화는 어른문화의 도덕적 실패를 변호하는 알리바이로 청소년을 거론할 때 그 극에 이른다. 불가해한 현상이지만 어른문화의 위기는 그것이 스스로 의식되는 계기에서 언제나 청소년 문화의 일그러짐을 문제로 제기한다. 적어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면, 청소년의 삶의 세계란 앞서 지적했듯이 어른문화가 빚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소년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른문

화 자체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우선해야 하고, 그것에서 증결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문화가 현존하는 생태적 환경이 어른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문화의 위기에서 그 위기의 책임이 기묘한 의식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로 투사되면서 어른의 문화는 그 위기관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한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대의 양심으로 자처하게 되고, 어떤 현실적인 비리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 윤리적 덕목의 실천자라고 하는 고상한 표지를 지니게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철저하게 희생양이 된다. 어른의 문화를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미 청소년은 인간일 수가 없다.

III.

그러나 청소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더구나 청소년은 가능성의 덩어리이기도 하다. 인간이 당연히 그렇듯이, 그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생태적 환경의 필연만을 살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비인간화가 제도화된 구조 속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것을 넘어서려는 역동성을 지닌다. 다행히도 어른이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태적 환경일 뿐 인간의 존엄 그것 자체를 근원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한계이고, 동시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더 좀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어른은 청소년의 꿈을 훼손할 수는 있지만 그 꿈의 현실성을 달아버리지는 못한다. 자유를 억압할 수는 있어도 자유에의 의지를 단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은 상상력을 지닌다. 그 상상력은 생태적 환경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현실적으로 초래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누리는 바로 이 상상의 세계이다.

그러나 어른들이 이를 모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알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않는다. 청소년을 사람으로 여기고자 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청소년을 비인간화하는 어른의 문화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은 어찌면 어른문화의 보편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질병현상이랄 수 있는 국부적인, 아니면 예외적인 현상이라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을 정말 사람으로 여기는 자리는 없을까라고 묻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 어른의 문화가 청소년을 참으로 사람으로 여기는 상황은 어찌면 현존하는 삶의 정황 자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상상력의 현존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기 조차한다.

그러나 분제는 이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내포하는 은폐된 부정적 함축이다. 생태적 환경을 넘나드는 상상력의 제어야말로 청소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판단을 지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 상상력을 주어진 어른들의 문화권 안에 제한하고 그렇게 갇들임으로써 그들로부터 그들이 주인되어 살아야 할 미래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단절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같은 사실은 불음을 수용하지 않은 채 답변만을 제시하는 우리의 문화가 가장 웅변적으로 실증한다. 어른의 문화는 청소년의 물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물음의 현실성을 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물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용해야 할 것은 내가 제시하는 답변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란 물음에 의해서 지녀진다. 물음은 이미 답변을 배태한다. 우리는 물은 것만을, 물은 만큼을 알 뿐이다. 그리고 그 삶의 세계가 내 현실적인 삶의 세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물음을 차단하고 답변만을 제시할 때 청소년은 자기세계의 상실을 경험한다. 상상력은 어른의 상상의 세계에 유해되고 그것을 메아리하면서 그 상상의 흔적을 유지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상상력은 그 답변의 울마저도 넘는다. 상상력의 한계란 본래 불가능하다. 무의 실재에서부터 둥근 사각형에 이르기까지 그 상상력은 어떤 제약도 전제하지 않는다. 주어진 해답이 더구나 현실일 때 그것이 상상력의 내용으로 정착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어른의 문화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때 어른의 문화는 권위라는 이름의 힘을 행사한다. 그것은 전통이라 이름되기도 하고 지혜라고도 이름되기도 하며, 축적된 지식일 수도 있고 그대로 물리적 힘일 수도 있다. 그것은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역사적 전승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승된 가치의 규범성이란 하나의 필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권위라는 이름으로 강요될 때 상상력은 그 권위 때문에 질식될 수도 있을 피해를 입는다. 더구나 승복되지 않은 권위는 권위일 수가 없을 때, 강요된 권위는 그 권위의 정당성 여부 이전에 폭행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청소년의 비인간화와 병행하여 청소년의 상상력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이같은 어른문화의 행태는 이른바 청소년의 단층화 현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청소년을 청소년이라 이름하여 청소년에게 헤버리는 울 지음이 그것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을 분명히 하면서 청소년의 상상력이 전개될 수 있을 시간대를 설정한다. 상상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시간 안에서는 특정한 양태의 상상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 뿐이다. 다른 어떤 상상도 승인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낚새가 보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상력인데, 그럴 때마다 청소년은 그 시간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의 어김 때문에 그들의 상상력에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느날, 너희는 이미 어른인데 왜 그리 어리냐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그나마 허용되어 지냈던 상상력은 모래섬처럼 허망하게 무너진다. 서서히 청소년은 상상 자체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렵게 된다. 청소년에서의 상상력의 메마름, 상상력의 고갈은 이렇게 현실화된다.

청소년을 울지워 놓는 일은 이런 시간대만이 아니다. 공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놀이공간은 청소년의 상상력이 나구 분출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간은 그 공간 안에서만 모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상상력에 대한 효율적 제약의 공간이기도 하다. 놀이터 문화는 결국 특정한 공간에다 그 상상력을 유해하려는 상상력 조작의 일환이다. 그렇게 규제된 공간에서 상상력은 스스로 무한하기를 포기하고 놀이공간의 구성요인들과의 상응성으로 그 상상력을 환원시켜 버린다. 전제된 법칙에의 예속이 상상력일 수 없을 때 청소년문화에서 남는 것은 다만 상상력이라는 이름의 빈 껍질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의

상상력이란 주어진 공간의 형성원리에 순응하는 길들여진 상상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시간과의 관련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공간에서도 벌어진다. 갑자기 그 놀이공간에서부터 추방당하면서 그 놀이공간의 형성원리인 그에 적합한 상상력의 무의미가 통고된다. 동시에 이제까지 금기였던 공간들이 한꺼번에 열리면서 청소년은 준비된 놀이공간에서의 상상력의 유치함을 실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어른문화에 의하여 설정된 청소년공간 안에서의 그들의 상상력의 수탈현상과 다르지 않다.

청소년의 단층화 현상은 그들의 상상력을 어른들이 마련한 시공 안에 유폐하면서 그들에게 그 단층의 한계 안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강요한다. 그 단층은 어른의 문화에서 독립된, 청소년을 참으로 사람으로 여긴 어른들에 의하여 마련된 청소년들의 영토로 전제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시공의 단층 안에서 스스로 서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어른들에 의한 청소년들의 상상력의 조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실은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어느 날, 그 단층 안에서의 절대적인 규범의 것처럼 어리석고 버려야 할 껌질처럼 폐기되어야 하는 현실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결국 상상조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라고 여기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어떤 동기에서 그런 주장이 선포되었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지천이어도 결국 어른문화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무책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이처럼 청소년을 사람으로 여기는 자리에서조차 그들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특성인 상상력의 분출은 물음을 차단한 해답, 그것의 정당성을 위한 권위, 그들을 유폐시키려는 시공에 의한 단층화, 그래서 무너지는 기만적인 책임 등에 의하여 철저히 봉쇄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상상력의 고갈에 의하여 미래는 효과적으로 차단되면서 청소년은 다만, 현재의 어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현재에 예속될 뿐이다.

IV.

우리에게 처음부터 과해진 주제는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하는 것이었다. 이 물음에 관한 한 우리는 전통적인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수직문화가 현대적인 수평문화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전통윤리는 붕괴되고 아직 수평적인 구조의 윤리는 미처 이루지 못한 문화적 전이계기가 맞는 위기라든가 경제지향적 가치체계의 부산물인 물질 만능주의와 한풀이식으로 지금을 사는 전후세대의 비정상적 생활방식이라든가, 서구문물이 부채질한 성개망의 불결이라든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비인간화, 소외, 익명성, 가정기능의 변화,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불안,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결여로 인한 법치질서의 혼미 등을 우리는 수없이 열거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정답”들은 이미 20여년 전에서부터 발언되던 것들이다. 그리고 그때 20대는 이미 40대이다. 그때 청소년들은 지금 어른이 되고, 그때 어른들이 청소년을 문제로 삼아 옛날 어른들이 우려하던 발언들을 이제는 자기네들이 다시 하고 있다. “요새 젊은 놈들은”하는 언표는 신화의 머릿말인

“옛날에 옛날에”처럼 이제는 이른바 의식있는 어른들의 발언의 접두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그 발언의 심각한 여운에 덧붙여 예의 “정답”을 부산하게 음송하는 것이다.

청소년에 관한 한, 우리는 이처럼 정형화된 인식의 구조를 벗어나 본 일이 없다. 어쩌면 이같은 사실은 두가지 이유중의 어느 하나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그 정답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도식으로 그런 내용의 정답을 쓰면서 청소년을 운위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크게 유리하게 기능하는 어떤 구조가 모든 시대의 어른문화에 내재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후자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하는 실은 대단히 섬찝한 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리에서의 청소년의 비인간화, 청소년을 사람으로 여기는 자리에서의 청소년의 상상력의 조작, 그리고 그 두 다른 자리가 공히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빙자한 어른들의 자기정당화의 동기들이었다. 그러한 것들이, 물음에 즉한 답으로 말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케 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문화를 문제로 삼는 그 문제의식을 배태한 문화 또는 사회의식 자체이다. 청소년문화, 무엇이 어떻게 그것이 문제인가 하는 물음의 해답이 그 진

정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문제를 왜 하필이면 문제로 삼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안고 있을 어떤 것, 그것이 실은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케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소박하게 잘라 말한다면, 시대적인 정황, 문화의 예토스, 그런 것이 어떠한든 상관없이 그것은 기존문화의 위선이다. 그리고 그 위선은 청소년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그 극치에 이른다.

다행히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케 하는 제반요인들이 구조화되어 그들을 뒤덮고 있어도, 청소년들은 인간이기에 그들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아간다. 그래서 인류사는 지탱되고, 문화는 전승되며, 미래는 기대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지 않은 채 아직은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증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황폐케 한 원인과의 관련에서 마지막 유보할 수 없는 발언이 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살며 사랑했어야 옳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특정종교의 덕목만일 수 없다. 청소년의 정신적 황폐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신뢰와 희망과 사랑의 상실이었기 때문이다.

주제에 대한 이 글은 비전문가의 의도적이고 과장된, 그러나 정직한 고백임을 분명히 천명코자 한다.